

보도자료

보도일시 [지면보도] 2021년 10월 1일 (금) 조간부터
[인터넷 기사] 2021년 9월 30일 (목) 12:00이후 가능

[연구관련]
장인성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
(044-287-6317, parksj@kli.re.kr)
담 당 자 신현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평가기획팀장
(044-287-6407, shin@kli.re.kr)

김기웅 한국노동연구원 홍보전략팀
(044-287-6571, kiwoong913@kli.re.kr)

배포일시 2021년 9월 30일 (목) 09:00

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의 고용효과

□ 본 연구는 지난 2011~2020년 시행된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고용효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

1.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의 특징과 추진 성과

-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은 주요 거점기관들의 장비구축을 지원하고 공동활용 연구기반을 조성하는 사업
 - 지역산업 육성, 중소기업 지원, R&D 역량 강화가 주요 목적
 - 2011~2020년 총 국비 2.7조원이 투입
 - 사업 주관기관의 비율은 테크노파크가 2019년 50.4%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연구기관이 30~33%를 차지
- 2019년 장비를 활용한 기관수는 6,375건, 장비가동률은 39.7%, 양성인력은 6,857명
 - 공동연구장비 활용기업은 96~97%가 중소·중견기업
 - 구축된 장비는 주로 시험 및 평가용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음

<표 1> 2017~2019년 성과지표

성과지표	2017년	2018년	2019년	비고
가동률(%)	37.0	37.7	39.7	평균
장비활용 기관 수(건)	4,365	3,104	6,375	합계
양성인력(명)	6,291	4,979	6,857	합계

자료 : 한국산업기술진흥원.

2. 고용에 미친 양적 효과

- 2017~2019년 54개 시설(센터)이 구축되었으며, 시설 및 장비 등의 운용과 관리를 위해 신규로 고용된 인원은 총 578명
 - 예산이 주로 장비구축 및 기반시설 조성에 주로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직접적인 고용효과는 제한적
- 기업지원 과정 및 수혜기업의 사업화 성과를 통해 창출된 간접 고용효과는 총 2,598명
 - 기업에 대한 기술사업화 활동 지원 등 기업지원을 위해 주관 기관 및 참여기관에서 신규 고용된 인원은 249명
 - 수혜기업의 사업화 성과 제고를 통해 창출된 고용은 2,349명
- 신규 창업 기업 또는 기존 기업들이 센터 및 지역에 입주하거나 이전하는 네트워크 효과를 통한 고용 창출 및 유입 효과는 총 1,361명
 - 기업 유치에 따른 고용 유입이 1,077명, 기업 이전 후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이 284명

3. 고용에 미친 질적 효과

- 직접 고용된 총 578명의 장비 운용 및 관리 인력 가운데 정

규직이 전체의 41.2%, 성별로는 남성이 63.8%

- 또한 신규직이 62%, 석사학위 이상 고학력자가 50.9%

<표 2> 기반조성사업을 통해 신규 고용된 장비 운용 및 관리 인력의 특성
(단위: 명, %)

구분		2017	2018	2019	합계
고용 형태	정규직	50	112	76	238
	비정규직	111	103	126	340
성별	남성	99	137	133	369
	여성	62	78	69	209
고용형태* 성별	정규직 비중(남성)	36 (36.4%)	75 (54.7%)	59 (44.4%)	170 (46.1%)
	정규직 비중(여성)	14 (22.6%)	37 (47.4%)	17 (24.6%)	68 (32.5%)
	정규직 비중(전체)	50 (31.1%)	112 (52.1%)	76 (37.6%)	238 (41.2%)
채용 구분	경력직	52	75	93	220
	신규직	109	140	109	358
학력	고졸 이하	1	20	6	27
	학사 및 전문학사	67	107	83	257
	석사	68	65	74	207
	박사	25	23	39	87

자료: 한국산업기술진흥원.

○ 주관(참여) 기관, 장비 운용·관리 및 기업지원 인력, 참여(수혜)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사업 참여가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고용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 비율은 높지 않았음

- 사업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향상에 대해 주관기관은 87%, 참여기업은 69%가 긍정
- 노동강도나 노동시간, 임금수준 등의 향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도가 낮았음

4. 정책 시사점

-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장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할 필요
 - 국가R&D 과제 선정 및 성과 평가 시 지역 내 공동장비 활용 성과에 대한 가점을 부여
 - 교육, 홍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예산 항목 마련 및 예산 배정
- 주관기관 및 수혜기업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확대하고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장비 및 기술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
 - 수혜기업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온라인을 통한 장비교육을 강화하고 필요 시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
 - 교육 이수 시 공동장비 사용료를 경감하는 등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여 전문성을 강화
 - 공동장비 활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적립하여 지속적인 장비운영 교육 등에 활용
- 장비 운용과 기업지원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부합하는 인력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적절한 임금체계를 수립할 필요
 - 장비 활용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해석하고 기업 R&D인력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가공하며, 시제품 제작 과정 중 보완점이나 제안 등 컨설팅의 범위까지 기술지원 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에 부합하는 인력 분류와 임금 체계가 필요
-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전후방 가치사슬별 네트워크 지원사업 및 중개, 매칭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 컨설턴트 pool 구축과 전문 코디네이터 육성이 필요

- 지역 내 각 장비 혹은 기술 분야 전문 컨설턴트 pool을 구축하여 공동장비 활용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
- R&D 성과의 사업화 및 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비 R&D사업 매칭까지 담당하는 전문 코디네이터를 육성. 끝.